

## 힙합 음악의 유행에 따른 힙합 패션에 관한 연구

박길순 · 김서연\*

충남대학교 의류학과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 자리했을 때에만 가능했던 음악의 향유가 현대에 와서는 대중매체를 비롯한 기술의 발달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대중적인 문화현상이 되었으며, 나아가 한 문화의 특징을 결정지을 수 있는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음악이 지니는 이러한 문화적인 특징은 또 다른 문화 현상인 패션에도 반영되어, 특정 시대와 사회에서 유행하는 음악의 스타일과 패션 현상이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음악에서 시작된 힙합이 현대 사회의 여러 분야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문화 요소임을 밝히고, 이것이 현대 패션에 어떻게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는지를 분석하는 데 있다.

연구의 기간은 힙합 음악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1991년부터 2000년까지로 하며, 연구는 힙합 음악과 힙합 패션에 관한 전문 서적들과 이러한 현상을 기록한 신문, 잡지의 기사들에 근거한 문헌적 자료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1970년대 초, 흑인 DJ들에 의해 시작된 새로운 장르의 음악인 힙합은 MC나 DJ들이 기존의 댄스음악에 랩을 가미하여 들려주던데서 시작되었으며(Mcing, Djing), 이 때 브레이크 부분을 반복적으로 틀어놓고 추던 춤인 브레이크 댄스는 1980년대에 이르러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으며 댄스의 독자적인 영역이 되었다(B-boying). 또한 힙합을 부르며 벽이나 전철 등에 그림을 그리거나 낙서를 하던 Graffiti 역시 독창적인 미술 영역이 되었다. 이처럼 MCing, DJing, B-boying, Graffiti 등으로 구성되는 힙합은 최초의 시작과 달리, 현재에 와서는 단순한 음악이 아닌 종합적인 문화 현상이 되었다.

힙합 음악이 세계적으로 유행하게 된 1990년대 이르러서는 이와 더불어 또 다른 문화 현상의 하나인 힙합 패션이 등장하였으므로, 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힙합 음악을 처음 시작한 흑인 음악가들의 패션은 금방이라도 흘러내릴듯한 헐렁한 바지와 커다란 신발로 특징지어지며, 이 때의 상의는 1990년대 초반 당시의 패션 경향인 몸에 꼭 끼는 스타일을 함께 착용하는 것이 보통이었다.

둘째, 힙합 음악이 점차 유행하게 됨에 따라 힙합 가수들의 패션을 따라하게 된 청소년들의 패션은 처음에는 힙합 가수들과 마찬가지로 꼭 맞는 상의와 헐렁한 바지를 함께 착용하는 스타일이 유행하였으나,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게 된 스노보드족의 영향이 혼합되어 헐렁한 상의와 헐렁한 바지를 착용하는 것으로 변화되었다.

셋째, 전체적으로 작은 듯하며 몸에 꼭 맞는 스타일이 유행하던 하이패션에도 흑인과 청소년

들이 즐겨 착용하는 힙합 패션이 적용되어, 1990년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험령한 힙러거 스타일의 하의와 몸에 달라붙는 작은 상의를 함께 착용하는 스타일이 유행하게 되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힙합 음악의 유행은 패션에 영향을 미쳐 1990년대에는 힙합 패션이 널리 유행하였으며, 이는 청소년들의 스트리트패션에서만이 아닌 매스패션과 하이패션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대중적인 패션현상이었다. 그러나 최초로 흑인 음악가들에 의해 제시되었던 힙합 패션은 시간이 흐를수록 스포츠를 비롯한 다른 문화적 요소, 다른 패션 경향들의 영향과 혼합되어 패션 전반에 걸친 여러 차례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었다.

요컨대, 힙합 음악과 힙합 패션 모두는 문화라는 커다란 테두리 안에서 상호작용하면서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받는 중요한 문화 요소들이라 할 수 있으며, 그 중에서도 패션은 다른 문화 요소들의 영향이 그대로 반영되며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시대와 문화의 거울이라 할 수 있다.